

# 43

## 이성 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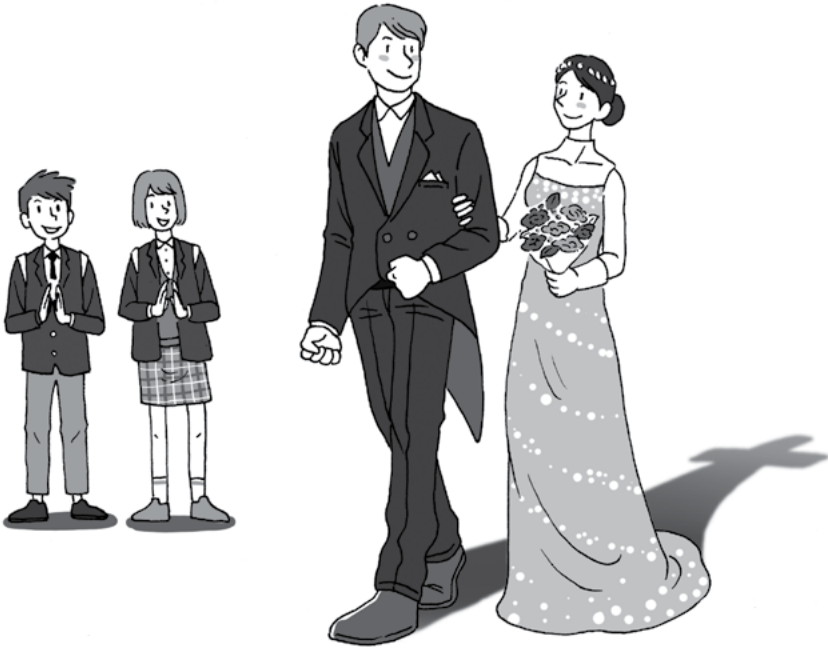
창 2:18~25, 고전 6:12~20

은혜찬송 115장 (주님의 시간에), 찬양 87장 (형제의 모습 속에)

오늘 배울



1.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이성관을 이해합니다.
2. 이성 교제에 대한 바른 원칙들을 알고 실천합니다.



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8~20)



## 을 이해하기

청소년기에는 대부분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외모에 신경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셨으며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성간의 사랑과 연합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형제는 결혼 후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신적, 육체적 성숙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신앙과 가정을 부양할 경제적인 준비까지 포함됩니다. 자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축복 가운데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없는 사랑은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야기하기 쉬운데 이는 사단에게 큰 휘방거리를 내주는 것이 됩니다. 청소년기는 신앙적으로 성장하며 학업에 충실하고 육체와 정신을 깨끗하게 지켜감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교회에서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대하며 서로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딤후 5:1~2)

Do not rebuke an older man, but exhort him as a father, younger men as brothers, older women as mothers, younger as sisters, with all purity. (1 Ti 5:1~2)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아담과 하와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고, 이성과의 관계를 파악해 봅시다(고전 11:8~12).

② 성경에서 이성교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고전 6:18, 딤편 5:2).

③ 학교와 교회에서의 이성에 대한 나의 태도(편견이나 차별 등)를 살펴보고 반성해 봅시다.

④ 앞으로 어떻게 이성을 대할지 다짐해보고 함께 교제해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창 39:1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of the day.

의

잠 5:21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of the day.

화

잠 6:3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of the day.

↑

고전 6:18

---

---

---

---

---

---

---

---

↓

딤후 5:2

---

---

---

---

---

---

---

---

↓

딤후 2:21

---

---

---

---

---

---

---

---

↓

딤후 2:22

---

---

---

---

---

---

---

---



## 너희 몸을 깨끗케 하라

북유럽에 사는 흰 담비는 털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흰 담비의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 흰담비를 잡는다고 합니다. 즉, 흰 담비가 사는 굴 입구에 숯 검정을 칠해 놓고 숲속에서 놀고 있는 흰 담비를 굴속으로 모는 것입니다. 굴 입구에 다다른 흰 담비는 자신의 흰 털을 더럽히기보다는 죽음을 택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느 누구라도 그 상황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영육의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겠습니까.”

요즘 당신을 유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살전 4: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일 3:3)



질문 있어요~



신명기 22장 5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은 괜찮은지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신 22:5)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위의 말씀은 옷차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되려고 한다든지 여자가 남자처럼 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살려야 하며 그것을 인간이 뜯어 고쳐서는 안 됩니다.

여자처럼 입고 머리도 꾸미고 장식도 달고 여자처럼 행동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목소리까지도 여자처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되려고 한다거나 여자가 남자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었으면 남자로 된 것에 감사하고 남자로서의 위신을 지키고 할 일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 여자처럼 되려고 합니까? 남자가 여자처럼 꾸미고 다니는 것은 가증스럽습니다. 위 말씀은 여자는 남자처럼 꾸미지 말고 남자는 여자처럼 꾸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할 일을 하고 여자는 여자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자는 긴 머리가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남자는 긴 머리가 자기에게 욕이 된다고 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여자는 긴 머리가 보기 좋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박박 민다든지, 너무 짧게 잘라서 뒤에서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면 안 됩니다. 뒤에서 보아도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러서 묶고 다니는 것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처럼 여자는 여자처럼 행동해야 하는데, 반대로 행동하는 것도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바꾸면 안 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남녀평등은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말이지 하는 일까지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참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스리시며 때로는 징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분노를 다스릴 줄 알며 이성교제에서도 깨끗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생활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니

성경에서 ‘인내’ 즉 ‘오래 참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훨씬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 ● 사랑하시는 자를 위한 징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분노 다스리기

분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성숙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성교제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성간의 사랑과 연합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없는 이성간의 교제는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야기하기 쉽고, 사단에게 큰 훼방거리를 내주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정리 활동



다음 활동 중에서 선택하여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마인드맵 / 성경 속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 단원 내용을 활용한 전도 편지  
신문 기사 / 등장 인물의 일기 / 티셔츠 디자인 / 4컷 만화 / 캘리그래피  
광고 / 포스터 / 성경 퀴즈 만들기 / 낱말 퍼즐 만들기